

특별강연 1
회복탄력성 체계 분석

회복탄력성 체계 분석과 무형유산, NGO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의 도전과제

로베르토 마르티네즈

경제협력개발기구 멕시코지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OECD가 가지고 있는 회복탄력성 체계 분석에 대해 여러분들과 의견을 나누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대미문의 상황에 직면해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해있는 새로운 상황, 새로운 맥락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경제·사회적인 위기라는 측면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분야에서 무형유산 관련 관점을 생각해볼 예정이고, 회복탄력성 시스템이라는 관점에서도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다자간 지원환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면서 다자간 관계의 측면에서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도 필요하다는 니즈에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회복탄력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충격이라든가 그런 특정한 현상을 흡수하고,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는 한편, 긍정적으로 변화나 충격에 적용하면서 구조를 전환해서 이런 위기라든가 충격을 계속해서 경감해나가는 능력이 바로 회복탄력성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러한 충격을 흡수하고 적용하고 변화, 전환을 통해서 미래를 대비해나가는 능력이 회복탄력성입니다. 그리고 향후 그 과정을 통해서 미래 기회를 잡는 것까지 회복탄력성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먼저 적응력이라고 하면 생계를 다각화한다든지, 기본적인 예를 들어서 서비스 같은 민감 분야에서 제공을 한다든지 다양한 분야에 적응력이 발휘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전환 능력 관련해서는 실제로 이 충격이 더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일 수 있습니다. 사회구조라든지, 생태구조라든지, 경제구조와 같은 다양한 구조들을 전환하는 것들이 이 전환 능력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예를 들어서 부패를 퇴치한다든지 기본적인 경제사회, 계획과 관련된 구조를 바꾼다든지 그것도 전환 능력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동시에 기회도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도전과제를 극복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서 전환 능력, 또는 변화능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사회 시스템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적인 회복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회복탄력성과 관련해서는 계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하여 OECD가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지요.

OECD 회복탄력성 분석과 관련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은 OECD에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보시게 되면 회복탄력성 시스템과 관련해서 일단은 리스크가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지, 리스크 지형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가 실제로 발휘되어야 하는 사회적 계층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에 역량 측면에서 이런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역량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있는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지요.

개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의 방법론 측면에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사회 단위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위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요, 지역사회가, 국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의 사회 단위를 시스템이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계유지라는 측면에서 OECD 관점에서 콩고민주공화국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을 진행했고, 이것에 기반해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실제로 생계라는 것은 다양한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실제로 생활을 다시 영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다양한 자원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새로운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 또는 전체 시스템, 예를 들어 인력자원, 자연 자원, 물리 자원, 사회자원 등등 6가지 자원 분야로 일단 나누어서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다루어야 할 자본의 종류는 맥락에 따라서, 또는 분석하는 시스템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툴킷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을 진행했었는데요. 실제로 인도주의적인 구호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대상 회복탄력성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이후에 결과

를 정책이라든지 프로젝트, 프로그램에 더 잘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자원이라든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분석 결과를 추후에 있을 정책이라든지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기업사회를 재정립하고 지역을 재정립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와같이 굉장히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는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이 중요하고, 분석이 더 중요성을 가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광범위한 시스템을 보통 분석하게 되는데 실제로 핵심적인 시스템 구성요소를 따로 떼어놓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시스템의 구성요소는 이런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구성요소는 가지고 있지 못하는지 강점과 장점이 무엇인지, 실제로 이런 충격이라든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자원에 대한 접근적 측면에서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장애물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회의 모든 계층에서 모든 레이어에서 이런 내용들을 분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적개발지원이라든지 다양한 구호지원이라든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지원 대상의 시스템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고 회복탄력성을 분석해서 이것을 정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OECD는 변화이론에 기반해서 이 회복탄력성 시스템 분석을 했었고, 이런 분석을 통해서 변화이론과 관련한 중요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자정이라든지, 전제 사항이라든지 경쟁을 해야 하는 것이죠. 미래 변화와 관련해서 가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검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로드맵을 통해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위기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날 경우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제고할 수 있을지를 로드맵을 통해서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프로그램의 모니터링이라든지 실제로 이행상황을 확인하고 추후에 개선을 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정보 관련해서도 좀 더 일관되고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실제로 나중에는 정책이라든지 전략이라든지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입력(Input)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방법론을 저희가 크게 4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거버넌스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풀뿌리 그룹이라든지 사회적인 기업 이니셔티브라든지 어떤 거버넌스를 가져갈 것인지, 범위를 가져갈 것인지, 무형유산도 마찬가지로. 이런 범위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무형유산이 실제로 기업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겠다는 식으로

범위를 정한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당사자를 참여시켜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를 발전시키겠다고 하면 이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지요.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이긴 합니다.

그리고서는 방법론을 검증하기 위한 방법을 만드는 것인데요. 실제로 상호적인 방법으로, 쌍방향적인 방법으로 저희는 이 검증 방법론을 만들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을 최종적으로 개발을 해서 산출물로 내게 되는데 이 로드맵이 제대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개의 모듈을 활용해서 워크숍으로 이런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리스크라든지 스트레스, 그리고 관련된 시스템의 영향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라든지 구성요소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이해당사자, 프로세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게 되고, 어떤 계산이 있는지, 어떤 시스템 탄력성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을 만드는, 5개의 모듈 워크숍을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말은 쉽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관점에서 저희가 일단은 시작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로드맵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방법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 로드맵을 사용해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변화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로드맵으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드맵과 관련된 액션도 장기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중기나 장기로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별도로 범주를 분류해서 도출을 할 수 있고요. 특별한 예를 들어서 시한이 정해져 있다 하면 이 시한에 맞춰서 저희가 로드맵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전문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지에 따라서 맞춰서 로드맵 액션을 만들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도출된 로드맵 액션은 적어도 하나의 주체, 담당 주체, 책임자가 지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면서도 세부적으로 충실한 토의를 통해서 이 로드맵이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실제로 로드맵의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관점에서 보더라도 회복탄력성 시스템을 분석하고 회복탄력성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NGO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회라든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NGO들의 역할이 굉장히 큼니다. 특히 무형유산이라는

것이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시간 관계상 세부적인 모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긴 어렵고 전반적인 상황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NGO 컨퍼런스가 오늘내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맥락에서 실제로 개별 공동체라든지, 국가라든지 단위의 회복탄력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경제 또는 사회 분야에 정책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굉장히 사회적인 공동체, 경제시스템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글로벌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이 지난 후에 제거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과제일 것입니다. OECD의 이 가이드라인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와 토론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더 강하게 만들고, 더 지속가능하도록 만들고, 더 회복탄력성을 강화해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NGO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